

Atmosphere IX.

내면의 조바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1.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존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의미있는 존재가 되었다.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마음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 하셨다. 자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님들의 본성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이기에 기꺼이 따르는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아는 신뢰의 마음에 변함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낼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존재가 없다. 그래서 자녀된 인간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이다.

2. 죄의 본성과 죄인 된 인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죄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다. 그 순간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창세기 3:19]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낟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 된 인간이 허무한 존재, 아무 의미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이란,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허무한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에서도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 (로마서 8:20)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앙은 무엇인가? 육적인 존재인 내 자신, 그래서 결국 '허무'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내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는 더 행복한 세상을 꿈꾸었다.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인간은 바벨탑을 만들었고, 그 목적은 하나님 없는 행복한 존재인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다.

[창세기 11:4]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흠어지지 않게 하자."

이름이란 무엇인가? '정체성' 을 말한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내 뜻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한 자아실현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이다. 무너짐이다. '허무'이다. 바벨탑의 결과는 무엇인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자신을 이름을 온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게 하겠다는 모든 꿈' 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3. 죄의 본성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인간은 '죄' 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었다. 선악과의 범죄 이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다. 죄가 관영했던 노아 시대의 심판을 알았다. 바벨탑의 반역의 결과를 알았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았다. 선악과 이후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두려움을 아는 존재이다. 죄의 결과와 심판과 그로인한 두려움을 앞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죄성'이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된 인간은 어리석다. 어리석음이란,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먹는 것이다. 거역하면 심판 받는 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역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양심의 책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다.

죄성의 또 다른 측면은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주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허무'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 허무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 길을 찾아 불안하게 더듬는 모습과 같다. 그래서 가면서도 불안한 것이다. 이루어도 불안한 것이다. 결국 육은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갈수록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더 불안하다.

4. 불안함을 인식하지 않기 위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 자기만족을 하는 것이 죄성이다.

인간의 죄성 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길이 허무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잠식시키기 위한 합리적 이유를 찾는다. 자신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의 성 안에 숨는다.

1)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를 서로에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한다.

2) 가인

[창세기 4:9]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악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신의 죄를 피해 '자기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로 반문한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가인의 모습이 바로 '죄성'이다.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하나님 때문에 결국 아벨을 죽였다' 는 인간의 합리성이다. '만약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다면 나는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 이라는 인간이 하나님께 만들어내는 합리적 설명이다.

그런데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이다. 가인의 인격 수양이 덜 된 것도 아니고,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다. 모든 기본 질서를 파괴로 능가할만한 힘이 바로 죄성이다. 무슨 말인가? 죄성있는 인간은 혼자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5. 사울의 범죄

사무엘상 13장의 사울은 이에 대한 '상징적인 예' 이다.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력한 신탁통치의 시대인 그 때,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사울에게 보이셨다. 사울이 왕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일이었다. 사울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이다.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생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울이 처한 상황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병거 삼만, 마병 육천,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끌고 사울 앞에 선 상황이다 (사무엘상 13:5). 이 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자,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다. 번제와 화목제는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할 몫이었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사울은 말한다.

[사무엘상 13:11-12]

11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2 이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제사장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모여들기 시작했다, 내 판단으로 이대로 가면 블레셋이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이 오면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뜻'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 이유를 조목조목 말한다.

6. 사울의 범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인간의 죄성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한다.

결국 사울의 범죄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의 문제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제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안에 있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성'의 문제이다.

7. 조급함과 불안함이 왜 일어나는가?

사울의 마음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조급함의 뿌리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문제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를 먼저 발견해서 우리 내면안에 안치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 이유의 성 안에 숨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8. 불안과 조급함의 함정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조급함'의 함정안에 빠지게 한다. 조급함의 뿌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하게 만든다. 무엇인가를 계속 하게하는(DOING) 이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 계속 무엇인가를 하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협박한다. 바벨처럼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울 왕도 흩어지는 백성 앞에서 왕으로써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했다. 상황과 환경에 철저하게 함몰되어 지배받는 인생. 이것은 흠으로 돌아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다.

9.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라는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 아브라함

[창세기 12:1-2]

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5:4-5]

4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5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세상의 시간을 따라 살면 조금해진다.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이다. 죄악된 인간, 흠으로 돌아간 인간은 흠으로 돌아갈 운명의 시간에 묶여사는 것을 말한다. 사울의 조급함은 바로 흠으로 돌아갈 죄의 한계로부터 오는 조급함이다. 그러나 믿음은, 죄악된 인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있어야 한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창세기 15장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나온다. "네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 질 것이라고 확인 하신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75세였고, 그 후로부터 25년 후에 이삭이 생겨남으로 약속이 성취된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들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된다.

10. 기다림을 배우라. 우리를 조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죄의 본성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환경으로 오는 조급함이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인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라. 기다렸지만 반드시 오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자녀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한다. 그로부터 오는 확신과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존재로 서게 할 것이다.

사울 뒤에 있었던 다윗은 기다림의 왕이었다. 헤브론의 7년, 광야의 10년 등 다윗의 인생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아들의 영으로 모든 조급함을 이기라. 이것을 연습하라. 더 굳건한 믿음위에 서게 될 것이다.